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우수 정착사례

◇ TCB 평가결과를 '단순 반영'하지않고 자체 기술평가 노하우 축적

"S은행은 자체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을 통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 중"

여타 은행의 경우 TCB의 평가결과를 받아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S은행은 이에 더하여 자체적인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자체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 TCB 평가서와 비교한 후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 하는 등 기술금융을 은행에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 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

- ☞ (자체 평가) 현장실사 업체에 대해 자체 기술평가 모형으로 기술등급을 산출하고 내부 양식에 따라 기술평가 보고서를 작성
- ☞ (평가서 비교 분석) 자체 작성된 평가보고서와 TCB 평가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체 기술평가 보고서 보완점을 검토
- ☞ (동반 실사) S은행은 매주 1개 이상 업체에 대하여 내부 기술금융평가 팀원이 TCB사와 동반 실사를 수행

◇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우수 기술기업 발굴

"W은행은 기술개발에서 곧바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기술금융을 지원"

여타 은행의 경우 영업점 방문 기업 또는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지원을 실시 중인 반면, W은행은 정부출연 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을 제공받아 기술개발에서 곧바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금융지원 가능

이를 통해 기술금융 정책의 당초 취지인 우수 기술을 보유하여 이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내부 전문인력 육성

“I은행은 전문인력 외부수혈 보다 기술금융 전문 내부인력을 육성 중”

기술금융 실시 이후 각 은행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 전문 변리사, 업종별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외부수혈하거나 내부 이공계 학위보유자들을 기술평가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한편, I은행은 전문인력 외부수혈에 한계를 느끼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역을 위한 기술금융 심사전문가 과정을 추가하고 내부직원을 선발하여 기술평가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와 기술가치평가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등 기술금융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

이를 통해 금융에만 익숙한 내부 직원에게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TCB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나아가 자체적인 기술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사례

“B은행은 기업성공을 위해 자금지원 이외 재무관리 등 경영컨설팅을 지원”

B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기술금융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력은 우수하나 세무, 회계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금조달 접근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금지원과 함께 투자유치, M&A, 재무관리, 부동산관리, 법률자문 등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제공하여 기업성공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

☞ B은행의 A 기업 경영컨설팅 실제 사례

- 지원센터를 통해 1주일간 재무실사, 영업실사, 법률실사 등으로 M&A 전략 제공
- 사업환경 및 사업거래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템 판촉전략 제시

◇ 기술금융에 대한 전문인력과 영업점의 소통 강화 사례

“K은행은 현장인력과 기술금융 전문인력간 소통 강화로 이해도 제고”

K은행은 '15.3월부터 기술금융 전문인력과 여신심사역, 영업직원 등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시장 동향 작성, 정기 간담회 운영 등을 실시

- ☞ (기술지식 공유) 기술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시 기술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한 심사역의 문의사항을 기술 전문인력이 조사하고 지원
- ☞ (기술시장 동향) 각 전문인력이 기술 전공분야에 대한 기술특징, 경쟁성, 업계동향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
- ☞ (정기 간담회) 월 1회, 기술 전문인력과 심사역이 모여 최근의 기술 금융 심사 및 이슈 업체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업종 심사역의 기술관련 궁금증을 해소

◇ 기술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리 및 모니터링 사례

「K은행 및 S은행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

기술신용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에 대한 기획감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금융 관련 문제점을 파악

이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연체율이 일반 중기대출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계속된 피드백을 통해서 기술금융 규모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

< 기술금융 관련 감리보고서 주요 내용 >

| K은행 | S은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 및 기술등급별 분석 · TCB 평가서 타당성 검토 · 관리대상 산업 취급현황 분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금융의 수익 마진을 분석 · 기술금융의 채권보전 비율 분석 · 차주의 재무구조 분석 등 |